

행함에는 >>>

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사랑이 좋아 그 사랑 조금씩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그만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지존의 포즈는 저런 것인가? 속에 하나님 사랑을 품고 한 맛이라도 더 올려 성도들의 입을 즐겁게 하려는 명검객들의 겁나는 칼질



FAITH IN ACTION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26

행함

8



2019

열 네번째 >>>

하나님과 팔 걸고 행하는
아기 손 크기의 작은 이야기들



이달의 행함킹: 윤창길 테레사가 보았으면 '형님!'으로 모셨다.

말이 될 이야기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힘든 할머니 집에 모셔 18년을 돌보신다는 말인가.

감동이라는 말은 부족하다. 충격 혹은 맨붕, 그 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국어 사전 필사 세번의 실력인데도 표현력의 한계를 수없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국어 사전 두 세번 더 베껴써야 할까보다. 그 분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윤창길, 하도 마스크에 많이 오르내려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메릴랜드 라벨장로교회 교인인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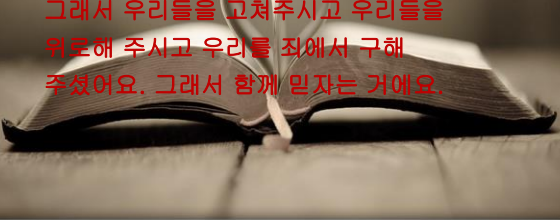
는 일이다. 그렇게 돌본 할머니는 행복해 하셨고 손주들은 잘 성장해 지금은 어엿한 한 사회인이 되었다.

과장이 아니다. 그의 솔한 행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해 언론에서 가하는 칭찬은 과하다기 보다는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다. 위로해야 할 사람 위로했고 배고픈 사람을 먹였다.



그의 좋은 일은 이렇게 좋게 끝나곤 한다. 90세 생일을 성대하게 치러드리고 하늘 나라에 보내드렸으니까. 그를 대하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말만 앞서지 행동은 남의 것인 우리 신앙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아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셨어요.
마음 아픈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아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아셨어요.
혼자사는 사람들의 고독을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믿자는 거예요.



돌보아야 될 사람을 돌보았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었다. 대표적인 일은 딸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해 갈 곳 없어진 할머니와 손주들을 18년 동안이나 돌본 일이다. 하루 이틀이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일 주일 까지도 억지로 해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18년? 모르는 사람을 18년 돌본다는 것은 사람은 못하

정말로 놀라운 것은 윤창길님의 아내다. 객 식구가 함께하면 제일 힘든 것이 주부다. 억지로 했다면 스트레스로 병이 나도 단단히 났을 것이다. 궁금해서 윤창길님께 물었다. "사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아주 건강합니다." 70이 넘으셨을 텐데 그 정도 건강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작은 사랑을 끊임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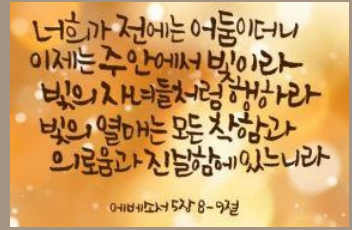
컵
“이거 집사님 것이죠?”
목사님께서 파란 컵에 물기를 닦아가면서 가져 오신다. 식탁 위에 있는 내 휴대용 컵을 깨끗이 씻어 주신 것이다.



정류장 표지판
살인적인 더위. 버스를 기다리는 데 햇빛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때 찾아낸 손바닥 만한 그늘. 정류장 표지판이 만들어 낸 햇빛 가리개가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우리도 처해야 되는데.

문 열어 주기
교회를 나올 때 뒤 따라 오는 성도들을 위해 문을 열고 기다려 주는 사람들이 참 아름다와 보인다.

노숙자
노숙자가 행인이 흘린 지갑을 찾아 돌려 주었다. 지갑 주인이 보상을 했다. 그는 받은 돈으로 음식을 사서 동료 노숙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북버지니아 4 대 불가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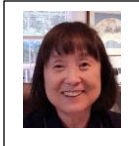
드디어 간다. 교회
그동안 직장 스케줄에 묶여 주일 성수가 불안정했는데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늘 7월 7일부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소풍가는 어린애가 따로없다. 그저 좋다.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성도들 계시지. 교회에 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데 왜 들 안나오는지 북버지니아 4 대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다. 나머지 셋은 뭐냐고? 그런 것 모른다. 그저 교회가 좋다.

원손이 모르게 >>>

믿는 사람은

-유인영기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않되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가 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 혹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상처 받는다. 완벽한 사람만이 그에 보조를 맞추어 이야기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입을 열기 힘들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 부족함을 내어 놓고 그 부족함을 통해 회개하고 그 부족함을 통해 믿음을 성장 시켜 나가야 한다.



그 분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다. 90 이 넘으신 부부께서 애난데일 거리 청소를 끊임없이 하신단다. 돈받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누구 못지 않은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계시다. 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어서...

전해 듣는 내내 감동이였다. 두분은 지위, 명예, 부 다 가지신 분들이다. 다시 말해 예전에 한 가닥 하시던 분들이다. 그런데 그런 티를 하나도 내지를 않으신다. 말도 많지 않으시단다. 왕년에 내가 어찌고 저찌고 하는 말들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 그저 말없이 봉사를 하신단다.

“교회는 사람보고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힘들어 다들 나갈 때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셨다. 큰 교회라면 대접 꽤나 받으실 위치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가지신 모든 것으로 보아 큰 교회에서 큰 일을 하셔야 어울릴 것 같다. 다들 그러니까. 그러나 그분은 정말 작은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 커피 떨어지면 커피를 준비하시고 숟가락 모자라면 숟가락 채워가시며...

진숙 집사님

-강샘 기자-

목장 식사시간 마치고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숙 집사님이 설거지 대를 껴차신다. 그리고 그릇을 닦기 시작. 하시는 설거지 속도에 아내는 맨붕. 거기에서 그동안 섬김의 삶을 사진 흔적을 읽는다.



선교 소식: 멕시코 선교

한상우목사

샬롬! 주 안에서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는 7/18 부터 23 일까지 5박 6 일간 한목사와 이제 12 학년과 10 학년이 되는 두 아들(한결, 한샘)이 멕시코 치아파스로 단기봉사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아버님이신 한영수 장로님을 모시고 서울의 모교회 현희철목사님과 함께 2014년에 소천하신 어머니, 김영희 권사님의 교회개척 유언을 받들어 치아파스에 서머나 중앙성서교회 예배당을 헌당하게 되었지요. 이번에 두 아들 결이와 샘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설레입니다.

금번 단기봉사선교여행에서는 위 교회를 포함해 세 군데 교회와 마을을 방문하여 어린이사역, 찬양사역, 의약품 선교, 문화공연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처음 해외 단봉선에 참여하는 두 아들과 또한 서울 중앙성서교회의 밀알선교팀의 연합사역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거두는 안전하고 뜻깊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 형제요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아래 기도제목들을 보시며 113 기도 (하루에 한 번, 3분씩)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우리의 눈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분들을 대하며 섬기도록
2. 인도하시는 안아브라함 선교사님을 잘 돕고 그 분의 사역을 보조하는 역할에만 최선을 다 하도록
3. 함께 동역하는 한국 밀알선교팀원들과 3C (collaboration, cooperation, communication) 를 잘 이루도록
4. 그들을 가르치거나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걸음임을 알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일에 솔선하여 임하도록
5. 여행기간 내내 안전과 좋은 날씨를 주시고 벌레나 독충을 조심하며 물과 음식을 갈아먹어 배탈나지 않도록



목장은

우리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갖는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각 목장에서는 선교지 한군데씩을 선택해 기도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과 선교지		
선교지	담당자	선교사
과테말라	김양중	김경택
우간다	강 샘	조이선교회(김진희)
가나	안예림	Chris Insaideo
이집트	구민희	탁수연
탄자니아	노푸른	조병훈
Haiti	강요한	Philipson & Kelsea Georges
CEF		황의정
쿠바		김현진, 장경순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선교지와 목장을 위해 특별기도를 합니다.



초심

-이유진 기자-

초심은 참 중요하다. 좋은 것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변질되고 변질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때 썸 정신차려 제자리로 돌아가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을 이행한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모습인지 되돌아 볼 일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 가르침이 좋아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따르려는 행동보다는 이론적 완성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때로는 성경 자체보다는 더 배운다는 목적으로 신학 그 자체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이제 한번 썸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달의 선교 기도제목

과테말라: 김경택선교사

목자: 김양중

- 세렐루 신학교 캠퍼스 사역과 빠봉 교도소 신학교 캠퍼스 사역을 위하여, 능력과 지혜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온 가족의 건강과 4자녀(요섭, 주은, 은석, 요한) 진로를 위하여
- 종교 체류비자가 잘 처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 장모님과 처가 식구가 예수믿고 구원 받게



여기 은공 마음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기 예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 >>>

-강수잔기자-



옆지기(남편)님이 휠체어가 고장이 나서 1년여 동안 고생을 했다. 바퀴가 덜렁거리 조종이 마음 대로 안되고 우리가 가니까 배터리도 빨리 달아 여간 고생한 것이 아니다. 휠체어 생명은 5년이다. 그 후로는 새것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휠체어 가격이 금값(아니 이제 부터는 금값을 휠체어 값이라고 바꾸어야 한다. 그 조그만게 차보다 비싸다니)이어서, 그리고 아직 다른 부분들이 쓸만해서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 바퀴만 문제가 있는데 정비소에서는 오래 된 것은 안전상 수리를 못하겠단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지만 타고 다닌 것이다. 요즘 더 나빠져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을 만나게 해 주셔서 완전히 수리가 되었다. 옆지기 님의 행복이 여간이 아니다. 너무 좋아서 필요 없는 운전까지 하고 돌아다닐 정도다. 고장이 없었으면 몰랐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휠체어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이제 마음대로 휠체어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며 고난이 축복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왜 순종하여야 하는가?

전통적인 부흥집회 강사들의 주 메시지는 담임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주의 종입니다. 담임목사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주의 종이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왜 담임목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은 팀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원이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팀장이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팀장의 의견을 좇아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팀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신 책임자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목사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히 13:17). 그래서 성도들은 담임목사 제안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담임목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둘째, 좋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담임목사가 좋은 교인을 만들지만, 교인이 또한 좋은 담임목사를 만듭니다. 자질이 60 점짜리 목사라 해도, 교인들이 기를 살려주면 90 점 짜리가 될 수 있고, 자질이 90 점짜리 목사라 해도 발목을 잡고 기를 죽이면 60 점 짜리가 됩니다. 저는 사실 자질이나 성품으로는 60 점짜리 목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제 약점은 눈감아주고, 제 강점은 자랑해주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해 준다면 좋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삶의 기본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성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순종하여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빌 2:6-8). 성도는 순종을 연습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특별히 자신과 동등하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편집 후에

-스마트 폰 첫 페이지 오른 쪽 두번째 자리해 있던 앱이 사라졌다. 무엇이 있었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꼭 이빠진 것처럼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된지가 꽤 된다. 성격 같아서 별써 다른 것을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빈채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문득 필요한 성경 앱이 있어서 다운 받으며 생각이 났다. 아하, 그래서...
다운 받은 성경 앱을 끌어다 빈자리에 넣었다. 이제 보기 좋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 자리를 성경으로 채워 놓는 것을 계획하셨던 거야.

-휠체어로 한참을 다녀야 될 일이 생겼다. 7월 한 낮 불별은 오래 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다녀야 한다. 웬 걸? 다니는 내내 구름이 해를 가려 오히려 달리는 기분을 즐기게 되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생각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테니까. 평생.

은혜공동체교회

Service & Meeting (예배 안내)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

예배: 1: 30pm

후원
김복성
임재철

발행인: 안형준목사
편집인: 김양중/강샘
기자: 유인영/ 이유진/ 강수잔



14640 Soucy Pl.
Centreville, VA 20120
703)625-3979